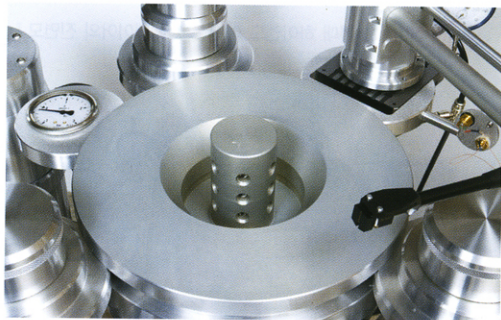




V.Y.G.E.R. Indian Signature



한치의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치밀한 사운드

바이거(V.Y.G.E.R.), 평론을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도 무척 생소한 브랜드이다. 이런 생소한 브랜드가 다른 제품이 아닌 초중량급 아날로그 턴테이블을 출시했으니, (적어도 아날로그 분야에서) 전통의 브랜드를 선호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아날로그의 열풍이 불고 있지만, 그것도 신생 브랜드, 특히 턴테이블 분야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탈리아 제품이라는 사실이 필자의 선입견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떠올랐다. 리뷰를 위해 동사의 홈페이지를 방문 후 이런 선입견들을 다소 불식시킬 수 있었는데, 신생 브랜드로 알고 있던 동사의 역사는 무려 15년으로 1993년 창립 후 줄곧 아날로그 분야, 그것도 턴테이블과 톤암만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생산하는 브랜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신은 다소의 신뢰감으로 바뀌게 되었다.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어 특집에 참가한 인디언 시그니처 모델 역시 2001년 출시된 제품으로 신생 브랜드의 처녀작이 아닌 그동안의 오랜 개선을 통해 최고의 완성도를 높인 제품이다. 적어도 2000년대 초에 이런 초중량급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는 것과,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델 단종 없이 꾸준한 인기를 누려 온 상황을 종합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제품이라는 것. 동사는 총 4종의 턴테이블을 생산하는 업체로 특히 유럽 지역에서의 높은 평가와 더불어 미국 지역에서도 높은 평가와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번이 소개하는 인디언 시그니처 제품의 경우 동사의 상징적인 플래그십 모델이다.

시청을 위해 용산의 오디오숍을 찾은 필자는 우선적으로 그 압도적인 디자인과 존재감이 놀라게 되었다. 디자인의 나라 이탈리아 제품답게 현대적인 미적 감각이 돋보였는데, 특히 스탠드부의 4개의 기둥과 일

체되어 구성된 플래터 부의 매끄러운 이음새와 디자인 감각은 가히 예술적인 경지이다. 일단 구조적인 특징부터 살펴보면, 총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스탠드 부, 플래터와 베이스부, 거기에 에어 컴프레서, 불순물을 거르는 필터부까지 전체 시스템 무게만도 120kg에 달하는 기함격 제품이다. 4개의 기둥 중 3개 기둥은 플래터와 베이스를 지지하는 스탠드의 역할을 수행하며 나머지 한 개의 기둥은 모터를 수납하고 벨트를 돌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무려 70kg에 달하는 플래터와 베이스부를 지지하는 기둥의 경우 구조적으로 내부에 탄성을 가진 와이어를 채택한 형태인데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시킨 설계 상상이 돋보인다. 턴테이블의 사운드 퀄리티에 스탠드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적어도 시각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이 제품이 주는 신뢰감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모터를 수납시킨 기둥의 경우 모터 자체의 진동을 플래터와 베이스에 전달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아예 기둥의 내부에 수납하여 완벽한 아이슬레이션 형태를 취하게 된다. Brushless AC 모터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종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최상급 제품을 채택했다. 에어 부상에 의해 공중으로 띄워지는 플래터의 경우 압축 공기의 균일한 분포를 위해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특수한 장치를 사용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벨트의 장력에 의해 플래터의 위치별 공기압의 불균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한 설계 기법은 분명 초 하이엔드 제품을 위한 메이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외에 인피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에어필터의 채용 등 인디언 시그니처에는 갖가지 기법들이 곳곳에 도입되고 있다. 특히 채용된 에어 컴프레서 부의 압도적인 정속성은 불편함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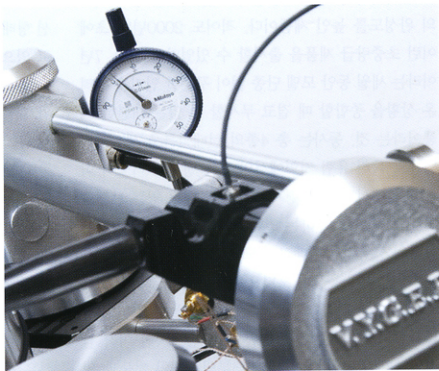
수입원 : 오디오갤러리 (02)926-9084
· 가격 : 6,800만원

이는 철재 새시에 완벽하게 아이솔레이션시킨 구조적인 특징이 큰 몫을 하는 것 같다. 장착된 톤암은 리니어 트랙킹 방식이다. 컴프레서에 의해 톤암이 부양된 상태에서 작동하는 구조인데 이 경우 톤암 레일을 따라 이동 시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일부 메이커들도 도입하고 있는 구조이다. 압파이프 재질은 카본의 채용하여 각종 공진에 강하며 낮은 질량으로 인해 리니어 트랙킹 방식에 적합하다.

시청은 베리티 자라스트로 스피커와 골드 문트 앰프의 구성으로 준비된 레퍼런스 포노 앰프와 카트리지를 이용·진행했다. 첫 곡으로 선택한 소스는 실베스트리 지휘의 관현악 모음집. 투명한 공간의 창조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입체적인 음상과 일체의 노이즈가 느껴지지 않는 고 S/N비에 의한 공간 창출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분명 그동안의 아날로그 음의 세계에서 장막을 벗겨낼 벗겨내는 듯한 이미지로 청량감이 감도는 시창실 주변의 공기감이 인상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음의 표현력을 두텁게 잡아가는 경향보다는 극도

의 해상력을 수반한 분해력을 바탕으로 펼쳐내는 스타일이다. 개별 선율의 두께감은 약간 얇아지는 대신 섬세하게 분석해서 많은 양의 정보들을 만들어 내는 스타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극한의 해상력을 바탕으로 한 초현대적인 아날로그 사운드의 재생 경향은 상대적으로 음의 온도감이 약간 서늘하게 느껴지지만, 이는 분명 인디언 시그니처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장점들에 비하면 희생할 수 있는 요소라는 의견이다. 사운드 스테이지의 압도적인 깊이감에 의한 음장 공간의 입체감은 분명 필자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로 단언컨대 최상급 디지털 재생을 가볍게 뛰어 넘는 본 제품의 장점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저역 부분의 반응은 상당히 스피디하고 보텀엔드(Bottomend)까지 가볍게 도달하는 경향이다. 이런 특성 덕에 입체적인 사운드 스테이지의 장점이 차원이 다른 수준까지 재현되는 것 같다. 마이

나리다가 연주한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역시 모노럴 녹음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 만큼 투명한 켈로 선율들이 시창실에 가득하게 뿌려진다. 이는 청취자의 향수를 달래는 회고적인 음의 성향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런 오랜 녹음에서도 섬세한 켈로의 질감을 맛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매력적인 경향이다. 피아노곡의 재생은 직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깔끔한 타건감을 주무기로 한다. 개별 건반의 정확한 표현력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느껴질 만큼 리얼한 수준이며, 약



구조적인 완벽성에 이탈리아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이 더해져 시각적인 존재감과 함께 한치의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치밀한 사운드는 분명 많은 이들의 호평 속에 본 제품의 존재감을 높이는 장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오랜 시간 동안 아날로그 마니아 분들께 화제의 제품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간 서늘하게 느껴지는 타건의 음색은 그만큼 정확한 해상력을 더욱 더 느껴지게 하는 반대급부적인 장점으로 표현된다. 여성보컬 곡의 경우 관능적인 경향보다는 음의 순도가 큰 장점으로 느껴지며, 이는 인디언 시그니처의 장점인 입체적인 공간 속에 자리 잡는 보컬의 정확한 위치 속에 홀로그래픽한 환상감을 주게 된다.

이 제품의 음의 경향상 가장 적합한 소스로 판단되는 오페라 곡에 대한 시청을 진행했다. 필자는 항상 오페라 소스의 합창 부분을 아날로그 사운드 평가용으로 즐겨 듣는데, 기본적으로 오페라 합창의 경우 사운드 스테이지의 좌우 및 전후 깊이감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뛰어난 재생이 힘들어지게 된다. 공간의 확보가 선결된 후 오케스트라와 합창부, 독주부가 정확한 위치에 정위되어 밸런스 잡힌 음악세계가 연출된다. 반면 음장 공간의 확보가 부족한 경우 반드시 정위감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며, 각각의 파트가 섞이게 되어 결코 완벽한 무대 재현이 어렵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제품의 강점은 유감없이 발휘되며, 입체적인 음장 공간은 물론이고, 거기에 보너스로 음의 분리감이 더해져 완벽한 오페라 무대가 연출된다. 재즈곡에서 보여주는 이 제품의 매력 역시 기역에 남을 만한 것인데 특히 금관 악기의 리얼함은 마치 스피커가 혼타입으로 바뀐 듯한 자연스러운 직진성과 호소력이 돋보이는 경향이다. 이는 분명 음악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리얼함을 창조하는 성향이며 리듬에 맞추어 저절로 흥이 나게 만들어 주는 본 제품의 특별한 만한 능력이다. 숨에 준비된 진공관 타입의 포노 앰프를 사용하여 재 시청에 입한 결과 전반적인 음의 경향은 변하지 않으며 대신 음의 두께와 온도감이 약간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필자의 취향 상 이쪽이 좀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칭 성향이다.

인디언 시그니처, 국내에 다소 늦게 소개된 것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하이엔드의 극한에 존재하는 사운드 경향이 인상적이었다. 음의 열린 공간 창조와 입체적인 사운드 스테이지 재생 능력 등 필자가 경험해



본 아날로그 플레이어 중 가장 현대적인 성향을 갖춘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고 S/N비와 분석적인 경향은 다소 서늘한 음색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분명 포노 앰프나 카트리지의 매칭을 통해 오히려 더욱 매력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런 약간의 불만족 요소를 일거에 날릴 수 있는 본 제품의 하이엔드적 성향은 현대적 의미의 아날로그 사운드의 방향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의 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구조적인 완벽성에 이탈리아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이 더해져 시각적인 존재감과 함께 한치의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치밀한 사운드는 분명 많은 이들의 호평 속에 본 제품의 존재감을 높이는 장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오랜 시간 동안 아날로그 마니아 분들께 화제의 제품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AI**